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

한 미 정*

서울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20-59세 사이의 882명의 성인들을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연령집단에 따라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 죽음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고, 세 변인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인임을 검증하고, 그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죽음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인들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죽음불안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인들의 폭이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연구되고 있고, 대부분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죽음불안은 연령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20-30-40-50대순으로 죽음불안이 낮아졌다. 자아존중감은 연령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죽음불안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죽음불안에 대한 중요한 설명변인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강력한 설명변인이었다. 내외통제성도 죽음불안과 부적상관을 나타냈지만 자아존중감 보다는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낮았다. 대처방식에서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죽음불안의 정적요인 즉 죽음불안을 상승시키는 변인이었다.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은 20대에서는 정적요인 즉 죽음불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부적요인 즉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이었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은 일관성 없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각 연령대별 죽음불안 수준 및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주요 설명변인들은 상담이나 죽음교육 프로그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특성에 맞게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교육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인, 대처방식(문제중심적대처·정서중심적대처·사회적지지추구대처·소망적사고대처), 내외통제성, 자아 존중감, 죽음불안(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자신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타인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

* 교신저자 : 한 미 정, (422-06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09번지,
E-mail : mj0209@hanmail.net.

인간은 누구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위험·고통이 예견될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정상적인 불안감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양상이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불안 중에는 실존적 불안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이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삶의 필연적인 종말·정지에 대한 불안이다(May, 1951, 1961; Frankl, 1969; Yalom, 1981). 결국 죽음불안은 본래 삶에 속해 있는 것이고, 개인의 내적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죽음에 대한 부인·회피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유도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어 현재 삶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죽음과 임종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근사(近死) 체험을 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죽음과 임종에 관한 연구를 한 Elizabeth Kubler Ross(1969)이다. 그 후 지금까지의 죽음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죽음에 가까이 있다고 가정되는 노인들이나 신체적인 죽음을 당면하고 있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고, 주로 개인의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건강수준,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변인들에 따라 죽음불안이 차이가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Hickson, Housley & boyle, 1988; 양혜정, 1992; 한미정, 2000). 특히 발달적으로 볼 때 성인기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불안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인생의 1/2를 차지하

고 매우 광범위하고 긴 시기인 성인기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연구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인구나사회학적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정도이다(Gesser, Wong, & Reker, 1987; Thomson & Powel, 1990a, 1994; Wong, Reker, & Gesser, 1994).

그러나 죽음이란 인간의 통제 영역 밖의 문제이지만 인간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대처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고 부담스럽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조절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다(Lazarus & Folkman, 1984). 즉 개인은 환경자극을 지각하고 조직하는 독특한 개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개인적 구조는 외적인 환경자극에 반응하는 의식적인 책략이다(McCrae, 1982). 일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문제중심적 대처(적극적 대처)가 효과적인 반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정서중심적 대처(소극적 대처)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지배적이고, 적극적 대처가 소극적 대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Cronkite & Moos, 1984; Holahan & Moos, 1987).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개념이 내외 통제성이다(Rotter, 1966). 내적 통제자는 자신이 자율적으로 운명을 지배하려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외적 통제자일수록 혐오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더 무기력하고, 내적 통제자일수록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능동적이었다(Seligman, 1975).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

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행동 결과에 대한 내적 통제의 신념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율적으로 지배하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Rotter, 1966; 서혜경, 1987; Hickson, Housley & Boyle, 1988; 양혜정 1992),

그러므로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은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대처를 강조하는 변인으로 죽음불안 대처에 중요한 변인이고, 인간의 취약성과 죽음의 필연성을 지각함으로 나타나는 죽음불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심리적인 기제인 것이다(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Rosenblatt, Burling, Lyon, Simon, & Pinel, 1992; 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 Weigel, Wertlieb, & Feldstein,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20-59세의 성인들을 4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각 연령대 별로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인을 고찰하고자 함에 있어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변인들이 각 연령대에서 죽음불안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59세에 속하는 일반남녀(대학생제외; 학력변인 등의 조절이유) 882명(남자 363명, 여자 519명 : 20대 250명, 30대 272명, 40대 235명, 50

대 125명)을 대상으로 2001년 3월 2일~3월 30일에 총 4종류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1)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대처방식 척도

Folkman & Lazarus(1980)의 척도를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방식, 정서중심 대처방식,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신뢰도는 .87~.95로 나타났다.

내외통제성 척도

Rotter(1966)의 척도를 차재호(1973)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죽음불안 척도

Collett & Lester(1969)의 척도를 서혜경(1987)이 변안한 도구로 죽음불안을 4가지로 측정(fear of death of the self, fear of death of others, fear of dying of the self, fear of dying of others)하며 신뢰도는 .72-.91이다.

자료분석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T-test, ANOVA, MNOVA 검증, Scheffe & Bonferroni 사후검증, stepwise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령집단에 따른 각 변인별 분석

연령집단에 따른 각 변인별 분석결과 대처방식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에서만 연령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6.36, p<.001$), 40대 집단($M=37.52$)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20대 집단($M=34.17$)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은 연령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내적 통제 집단에서는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88, p<.05$), 40대 집단이 더 내적 통제성을 보였다($M=11.29$).

죽음불안은 ① 전체 죽음불안에서는 20대($M=90.49$)-30대($M=89.91$)-40대($M=87.55$)-50대($M=83.89$) 집단 순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적게 나타났고($F=8.99, p<.001$), 여자($M=90.48$)가 남자($M=86.68$)보다 더 큰 죽음불안을 보였으며($t=13.16, p<.001$), 특히 30대 여성($M=91.26$)이 더 큰 죽음불안을 보였다. ②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DS)은 30대($M=22.40$)-20대($M=21.79$)-40대($M=21.73$)-50대($M=19.65$) 집단 순으로 죽음불안이 적어졌고($F=8.46, p<.001$), 여자($M=22.08$)가 남자($M=21.39$)보다 더 큰 불안을 느꼈으며($t=18.02, p<.001$), 특히 30대 집단($t=12.89, p<.001$)과 20대 집단($t=9.31, p<.01$)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③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DO)은 20대($M=26.65$)-30대($M=25.53$)-40대($M=24.65$)-50대($M=23.85$) 집단 순으로 죽음불안이 적어졌고($F=18.52, p<.001$), 여자($M=26.34$)가 남자($M=24.24$)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t=6.93, p<.01$), 특히 50대 집단에서 성별 간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t=15.09, p<.001$). ④ ‘자신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

(DyS)과 연령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⑤ ‘타인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DyO)은 20대($M=15.03$) 집단에서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50대($M=14.86$)가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다($F=3.81, p<.01$).

연령집단에 따른 각 변인별 관계분석

전체집단

표 1에 의하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전체 죽음불안 및 DS, DyO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전체 죽음불안 및 DO, DyS와 정적상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은 DO, DyS와 정적상관, DyO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DO와는 정적상관, DyO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은 전체 죽음불안 및 DS, DyS, DyO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표 6, 7, 8, 9, 10에 의하면, 전체집단에서 전체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일차적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이고, 내외통제성-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순 이었다. DS는 자아존중감-내외통제성 순이었고, DO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뿐이었다. DyS는 자아존중감-정서중심적 대처방식-내외통제성 순이었고, DyO는 내외통제성-자아존중감 순이었다.

20대 연령집단

표 2에 의하면, 20대 집단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DO와만 정적상관을 보여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20대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죽음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전체 죽음불안에서만 정적상관을 보였고,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은 전체 죽음불안 및 DO, DyS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사회적지지추구

표 1. 전체집단의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과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

		죽음불안					대처방식				자아 존중감	내외 통제성
		전체	DS	DO	DyS	DyO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		
죽 음 불 안	전체	1										
	DS (Death of Self)	.79***	1									
	DO (Death of Others)	.68***	.34***	1								
	DyS (Dying of Self)	.72***	.53***	.297***	1							
	DyO (Dying of Others)	.76***	.41***	.37***	.41***	1						
대 처 방 식	문제중심대처	-.07*	-.08*	.05	-.01	-.15***	1					
	정서중심대처	.10**	.03	.11***	.13***	.05	.55***	1				
	소망적사고대처	-.01	-.06	.08*	.07*	-.08*	.73***	.61***	1			
	사회적지지추구대처	.01	-.01	.10**	.00	-.10**	.57***	.45***	.48***	1		
	자아존중감	-.19***	-.12***	-.05	-.20***	-.197***	.34***	.04	.22***	.21***	1	
	내외통제성	-.16***	-.10**	-.02	-.14***	-.20***	.23***	-.04	.09*	.14***	.26***	1

*p<.05 **p<.01 ***p<.001

표 2. 20-29세 연령집단의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과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

		죽음불안					대처방식				자아 존중감	내외 통제성
		전체	DS	DO	DyS	DyO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		
죽 음 불 안	전체	1										
	DS (Death of Self)	.78***	1									
	DO (Death of Others)	.67***	.34***	1								
	DyS (Dying of Self)	.72***	.56***	.30***	1							
	DyO (Dying of Others)	.66***	.26***	.25***	.31***	1						
대 처 방 식	문제중심대처	.05	.04	.125	.08	-.08	1					
	정서중심대처	.125*	.08	.11	.12	.06	.497***	1				
	소망적사고대처	.15*	.07	.15*	.17**	.054	.68***	.59***	1			
	사회적지지추구대처	-.01	.01	.15*	-.005	-.17**	.514***	.35***	.38***	1		
	자아존중감	-.04	-.02	.054	-.06	-.09	.41***	.10	.296***	.34***	1	
	내외통제성	-.03	.014	.09	-.03	-.15*	.26***	.04	.15*	.25***	.27***	1

*p<.05 **p<.01 ***p<.001

대처방식은 DO와는 정적상관, DyO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내외통제성은 DyO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7, 8, 9, 10에 의하면, 20-29세 집단에서 전체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변인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DO 및 DyS를 설명하는 설명변인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뿐이었고, DyO는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소망적사고 대처방식 순이었다.

30대 연령집단

표 3에 의하면, 30대 집단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DS, DyO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DO, DyS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및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과 죽음불안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내외통

제성과 자아존중감은 전체 죽음불안 및 DS, DyS, DyO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표 6, 7, 8, 9, 10에 의하면, 30-39세 연령집단에서 전체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일차적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내외통제성 순이었다. DS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내외통제성 순이었고, DO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자아존중감 순이었다. DyS는 자아존중감-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순이었고, DyO는 내외통제성-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순이었다.

40대 연령집단

표 4에 의하면, 40-49세 연령집단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DyO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전체 죽음불안 및 DO, DyS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은 DyO와만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도 DO와만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내외

표 3. 30-39세 연령집단의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과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

		죽음불안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전체	DS	DO	DyS	DyO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죽음불안	전체	1										
	DS (Death of Self)	.77***	1									
	DO (Death of Others)	.65***	.56***	1								
	DyS (Dying of Self)	.72***	.54***	.35***	1							
	DyO (Dying of Others)	.76***	.43***	.32***	.36***	1						
대처방식	문제중심대처	-.12	-.18**	.05	-.02	-.15*	1					
	정서중심대처	.08	-.07	.16**	.14*	.03	.58***	1				
	소망적사고대처	-.03	-.12	.09	.07	-.095	.75***	.66***	1			
	사회적지지추구대처	.05	-.04	.11	.094	.002	.59***	.48***	.55**	1		
자아존중감	-.21***	-.14*	-.10	-.25***	-.15*	.34***	.11	.27***	.18**	1		
내외통제성	-.21***	-.15*	-.04	-.16**	-.25***	.15*	-.13*	-.03	.002	.27**	1	

*p<.05 **p<.01 ***p<.001

표 4. 40-49세 연령집단의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과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

		죽음불안					대처방식				자아 존중감	내외 통제성
		전체	DS	DO	DyS	DyO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죽 음 불 안	전체	1										
	DS (Death of Self)	.81***	1									
	DO (Death of Others)	.71***	.44***	1								
	DyS (Dying of Self)	.73***	.48***	.30***	1							
	DyO (Dying of Others)	.84***	.53***	.48***	.53***	1						
대 처 방 식	문제중심대처	-.08	-.06	.095	-.09	-.16*	1					
	정서중심대처	.154*	.12	.13*	.13*	.098	.55***	1				
	소망적사고대처	-.06	-.06	.08	-.01	-.16*	.73***	.58***	1			
	사회적지지추구대처	-.02	.02	.13*	-.09	-.11	.57***	.51***	.73***	1		
	자아존중감	-.24***	-.13	-.02	-.296***	-.299***	.36***	.01	.18**	.15*	1	
	내외통제성	-.18**	-.096	-.01	-.22***	-.24***	.31***	-.04	.12	.14*	.35***	1

*p<.05 **p<.01 ***p<.001

표 5. 50-59세 연령집단의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과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

		죽음불안					대처방식				자아 존중감	내외 통제성
		전체	DS	DO	DyS	DyO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죽 음 불 안	전체	1										
	DS (Death of Self)	.80***	1									
	DO (Death of Others)	.69***	.34**	1								
	DyS (Dying of Self)	.76***	.65***	.234	1							
	DyO (Dying of Others)	.78***	.41***	.42***	.57***	1						
대 처 방 식	문제중심대처	-.07	-.14	.05	.08	-.16	1					
	정서중심대처	-.06	-.12	-.03	.096	-.06	.63***	1				
	소망적사고대처	-.09	-.26*	.06	.08	-.06	.73***	.59***	1			
	사회적지지추구대처	-.06	-.003	-.02	.04	-.19	.74***	.62***	.54***	1		
	자아존중감	-.46***	-.42***	-.25*	-.31*	-.39***	.104	-.23	-.02	-.014	1	
	내외통제성	-.21	-.32**	-.197	-.16	.08	.06	.098	.16	.25*	-.03	1

*p<.05 **p<.01 ***p<.001

통제성과 자아존중감은 전체 죽음불안 및 DyS, DyO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표 6, 7, 8, 9, 10에 의하면, 40대 연령집단에서 전체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일차적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이고, 다음이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소망적사고 대처방식 순이었다. DS를 설명하는 개별 변인은 없었다. DO는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고, DyS는 자아존중감-정서중심적 대처방식-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 순이었으며, DyO는 자아존중감-내외통제성 순이었다.

50대 연령집단

표 5에 의하면, 50대 집단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및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은 죽음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소망적사고 대처방식도 전체 죽음불안과는 유의 있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DS와만 부적상관을 보였고, 내외통제성도 DS와만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전체 죽음불안에서는 물론 DS, DO, DyS, DyO 모두

에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표 6, 7, 8, 9, 10에 의하면, 50대 연령집단에서 전체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고, 21%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DS는 자아존중감-내외통제성-소망적사고 대처방식-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이다. DO, DyS, DyO는 자아존중감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죽음불안에 대한 연령집단별 연구변인의 설명력 비교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죽음불안에 대한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을 각 연령집단별로 비교하여 일차적 설명변인부터 순서로 제시한다.

전체 죽음불안에 대한 연령집단별 설명력 비교 (표 6 참조)

전체 연구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정서중심적 대처; 20대 집단은 소망적사고 대처

표 6. 죽음불안(전체)에 대한 연령집단별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의 설명력 비교

	예언변인	전체죽음불안			
		R ²	β	Adjusted R ²	F
전체집단	자아존중감	.04	-.188	.04	30.17***
	내외통제성	.05	-.116	.05	20.68***
	정서중심대처	.06	.104	.06	17.02***
20-29세집단	소망적사고	.02	.15	.02	5.54*
30-29세집단	자아존중감	.05	-.21	.04	12.44***
	내외통제성	.07	-.16	.06	9.93***
40-49세집단	자아존중감	.06	-.24	.06	14.53***
	정서중심대처	.08	.16	.08	10.53***
	소망적사고	.10	-.17	.09	8.73***
50-59세집단	자아존중감	.21	-.46	.20	16.73***

*p<.05 ***p<.001

방식; 3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4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5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순이었다.

내외통제성,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 순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DS)에 대한 연령 집단별 설명력 비교(표 7 참조)

전체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20대 집단은 모든 연구변인이 상호작용하여 $R^2=.009$ ($p<.05$); 30대 집단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40대 집단은 모든 연구변인이 상호작용하여 $R^2=.054$ ($p<.05$); 5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DO)에 대한 연령 집단별 설명력 비교(표 8 참조)

전체 연구집단에서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20대 집단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30대 집단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40대 집단은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 5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순이다.

표 7. DS에 대한 각 연령집단별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의 설명력 비교

	DS(Death of Self)					
	예언변인	R ²	β		Adjusted R ²	F
전체집단	자아존중감	.01	-.12		.01	11.87***
	내외통제성	.02	-.08		.02	8.13***
20-29세집단	모든변인	.01	문제중심	-.01	.02	.36**
			정서중심	.06		
			소망사고	.05		
			지지추구	-.02		
			내외통제	.02		
			자존감	-.04		
30-29세집단	문제중심적대처	.03	-.18		.03	8.78**
	내외통제성	.05	-.12		.04	6.55**
40-49세집단	모든변인	.05	문제중심	-.06	.03	2.16*
			정서중심	.08.23		
			소망사고	-.15		
			지지추구	.02		
			내외통제	-.03		
			자존감	-.08		
50-59세집단	자아존중감	.18	-.42		.16	13.12***
	내외통제성	.28	-.33		.26	12.15***
	소망적사고	.33	-.23		.297	10.02
	사회적지지추구	.38	.27		.34	9.17***

* $p<.05$ ** $p<.01$ *** $p<.001$

표 8. DO에 대한 각 연령집단별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의 설명력 비교

	DO(Death of Others)				
	예언변인	R ²	β	Adjusted R ²	F
전체집단	정서중심대처	.01	.12	.01	10.88***
20-29세집단	소망적사고	.02	.15	.02	5.91*
30-29세집단	정서중심대처	.03	.16	.02	6.93**
	자아존중감	.04	-.12	.03	5.47**
40-49세집단	사회적지지추구	.02	.13	.01	4.19*
50-59세집단	자아존중감	.06	-.25	.05	4.28*

*p<.05 **p<.01 ***p<.001

‘자신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불안’(DyS)의 연령집단별 설명력 비교(표 9 참조)

전체 연구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20대 집단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3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4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 5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순이다.

‘타인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불안’(DyO)의 연령집단별 설명력 비교(표 10 참조)

전체 연구집단에서는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 20대 집단은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30대 집단은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 4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50대 집단은 자아존중감 순이다.

표 9. DyS에 대한 각 연령집단별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의 설명력 비교

	DyS(Dying of Self)				
	예언변인	R ²	β	Adjusted R ²	F
전체집단	자아존중감	.04	-.20	.04	35.36***
	정서중심대처	.65	.13	.06	25.82***
	내외통제성	.07	-.09	.06	19.36***
20-29세집단	소망적사고	.03	.17	.03	7.44**
30-29세집단	자아존중감	.06	-.25	.06	17.55***
	정서중심대처	.09	-.17	.08	12.99***
40-49세집단	자아존중감	.09	-.296	.08	22.35***
	정서중심대처	.11	.14	.098	13.76***
50-59세집단	사회적지지추구	.12	-.16	.11	10.93**
	자아존중감	.09	-.31	.08	6.53*

*p<.05 **<.01 ***p<.001

표 10. DyO에 대한 각 연령집단별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의 설명력 비교

	Dyo(Dying of Others)				
	예언변인	R ²	β	Adjusted R ²	F
전체집단	내외통제성	.04	-.20	.04	34.18***
	자아존중감	.06	-.16	.06	27.33***
20-29세집단	사회적지지추구	.03	-.17	.02	7.53**
	소망적사고	.05	.14	.04	5.997**
30-29세집단	내외통제성	.06	-.25	.06	18.31***
	자아존중감	.08	-.12	.07	11.28***
40-49세집단	자아존중감	.09	-.299	.09	22.90***
	내외통제성	.11	-.15	.10	14.90***
50-59세집단	자아존중감	.15	-.39	.14	11.50***

*p<.05 ***p<.001

논 의

전체집단의 죽음불안과 세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설명력 분석

① 전체집단에서 죽음불안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이고, 다음이 내외통제성-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순이었다. 즉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이었고,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죽음불안을 상승시키는 설명변인이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취약성과 죽음의 필연성을 지각하는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심리적 기제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결과이다(Greenberg et al., 1986; 1992). 그러나 죽음불안과 관련되어 초래되는 감정상태를 통제하려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사용은 죽음불안을 상승시킨다. 즉 죽음의 필연성을 억압, 부인하려는 경향성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Janoff-Bulman, 1989).

② 전체집단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DS)을 예언하는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내외통제성 순이었고, 이 두 변인 모두 DS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 통제자가 보다 덜 불안하고(Mandler & Watson, 1966; Watson, 1967; Ray & Karahn, 1968), 특히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죽음 불안이 높다는 선행연구(Rotter, 1966; 서혜경, 1987; Hickson, Housley & Boyle, 1988; 양혜정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외적 통제자들 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내적 통제자들이 죽음불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긍정적일수록 죽음불안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자아존중감과 죽음불안의 부적관계임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Mashall, 1980, 1990; 한미정,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취약성과 죽음의 필연성을 지각하는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심리적 기제로써, 이것은 개인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아존중감의 방어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Greengerg et al., 1986; 1992).

③ 전체집단에서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DO)을 예언하는 설명변인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만 나타났고, 이것은 죽음 불안을 상승시키는 변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타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자아존중감이나 내외통제성,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이외의 대처방식 변인들만이 유의한 상관 및 설명변인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은 모두 죽음 불안과 정적상관 즉, 죽음불안을 상승시키는 변인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억압·부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죽음 문제는 타인의 문제가 아닌 바로 자신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인 양 부인하고 회피하려 할 때 오히려 죽음불안이 상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각 개인이 상황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예기되는 상황)에서는 문제 중심적인 대처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정서 중심적인 대처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Rotter, 1965; Lazarus & Folkman, 1984; Cohen, Evans, Stokols, & Krantz, 1986)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런 연구결과로 해석된다면, 죽음은 사람이 통제 가능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중심적 대처행동을 취할 때 효과적이고 죽음불안이 적어야 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정서중심적 대처가 오히려 죽음불안을 상승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④ 전체집단에서 ‘자신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불안’(DyS)을 예언하는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정서중심적 대처-내외통제성 순이었다. 이는 DS에서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차이점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 DS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음에 반해 DyS에서는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죽음불안을 상승시키는 변인이라는 점이다. 즉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정서중심적으로 대처(죽음의 필연성을 억압·부인하려는 경향성) 했을 때 죽음불안이 상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전체집단에서 ‘타인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DyO)을 예언하는 설명변인은 내외통제성-자아존중감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DyO와 유의한 변인들은 모두 부적상관 및 죽음불안 감소변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 DO나 DyS에서는 중요한 설명변인임에 반해 DyO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고, 특히 DO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성인들은 ‘타인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로 임하는 한편 마치 남의 문제처럼 대함을 알 수 있다.

20대 연령집단의 죽음불안과 세 변인간의 관계 및 설명력 분석

전반적으로, 20대 연령집단에서 죽음불안의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이었고, 이는 죽음불안을 상승시키는 변인이었다.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은 DyO에서만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대는 아직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양육자와 부착하고자 하는 욕구인 ‘병합성 자아’ 시기이고(Sheehy, 1976), 아직 부모의 지배 하에 있는 시기(Frank, Avery, & Laman, 1988)로서, 아동기에 습득한 잘못된 가정들 즉, 부모는 늘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을 것(Gould, 1978)이라는 잘못된 가정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가정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을 사용케 하고, 이것을 통해 죽음불안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죽음불안은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발달이나 종교발달 이론가들에 의하면 30세 이전에는 성숙한 도덕수준이나 신앙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ohlberg, 1963; Fowler, 1981; Westerhoff III, 1976). 즉 20대는 아직 ‘신비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이나 ‘관습적인 신앙’ ‘이분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막연한 소망적 사고는 오히려 죽음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인생의 스승을 발견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지혜와 도덕적 지원과 실제적 도움을 받는다(Levinson, 1978)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사용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흥미로운 것은 20대 집단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DO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죽음불안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였는데, DO에서는 20대 집단은 물론 모든 연령집단에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20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함). 즉, DO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는 죽음불안을 높일 수 있고, 특히 20대에서 유의한 상관은 이들이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즉 20대는 아직 성인 삶의 ‘꽃나기’ 시절로서, 불안정하고 미완성의 성인 삶의 구조를 수립해 가는 시기인데(Levinson, 1978), 이 때 이들에게 중요한 타인(예; 부모 등)의 죽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고, 중요한 후원자·스승을 잃는 결과이므로 이들의 죽음불안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20대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이 죽음불안과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집단은 물론 30대, 40대, 50대 집단과 비교할 때 매우 의의 있는 결과이다. 즉, 20대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은 죽음불안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Bradley & Webb, 1976)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연령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에서 각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 및 자아존중감이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주장(Mussen et al., 1984; Marsh & Shavelson, 1985; Marsh, Byrne & Shavelson, 1988)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흥미 있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죽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하는 인지 프로그램 및 정서통제 프로그램이나 ‘후원자’로서의 상담자 역할 및 인간관계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연령집단의 죽음불안과 세 변인간의 관계 및 설명력 분석

전반적으로 30대 집단에서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었다. 그 가운데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이었지만,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죽음불안을 상승시키는 설명변인이었다. 자아존중감이나 내외통제성은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20대 집단 제외)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고 있다. 즉,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및 내적통제성은 죽음불안을 낮추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특히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30대에서만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30대의 발달적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즉, 30대는 자신의 삶을 보다 견고하게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연마하고, 일에 대한 패기가 절정에 달하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인정받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진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이고, 자신의 기회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펼치는 ‘경력강화’의 시기로서 직업에서는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고 목표달성에 더 열심인 시기이다(Vaillant, 1977; Levinson, 1978). 이와 함께 30대 후반에 이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자신의 실수를 보다 만족스러운 인생의 기초를 마련할 기회로 삼는 등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기’(Gould, 1978), ‘자기 성찰의 시기’(Levinson, 1978)이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죽음교육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귀인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 대처 훈련 프로그램 및 정서통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40대 연령집단의 죽음불안과 세 변인간의 관계 및 설명력 분석

전반적으로 40대 연령집단에서는 모든 연구변인이 죽음불안과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

존중감, 내외통제성,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었다. 자아존중감이나 내외통제성은 40대에서도 역시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는 직장에서 상급자의 위치에 있게 되고, 자신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인생구조를 설계하는 시기로(Levinson, 1978), 이것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탐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Vaillant, 1977). 또한 이 시기는 부모의 죽음이나 자신의 질병 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인정하는 시기로(Levinson, 1978), 이는 ‘죽어 가는 존재’에 대한 즉, 상황에 대한 조절, 통제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죽음불안을 감소시킨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사용은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죽음불안을 상승시켰다.

40대 집단에서 주목되는 결과는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이 20대와는 달리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40대에 이르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 면에서 감퇴하기 시작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종교적·문화적·철학적 상징으로 승화되는 정신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Jung(1969)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시기는 진리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기 때문에(논어 위정편; 40세 不惑) 소망적 사고는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DyO와의 상관은 30대와 40대 집단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시기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타인이 죽어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고, 이것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지

지추구 대처방식은 DS에서는 죽음불안을 상승시켰지만, DyS에서는 감소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죽음교육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및 귀인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적절한 신앙지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50대 연령집단의 죽음불안과 세 변인간의 관계 및 설명력 분석

전반적으로 50대 집단은 죽음불안이 가장 낮았고,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은 자아존중감,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50대 집단이 죽음불안이 가장 적었던 것과 함께 50대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특히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50대는 보다 원숙하고 평온한 시기를 맞게 되고(Vaillant, 1977), ‘천명’을 알게 되는 시기라는 점의 반영이다(논어 위정편).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안정적이라 보고되고 있고(Mussen et al., 1984; Marsh & Shavelson, 1985; Marsh, Byrne & Shavelson, 1988; Higgins, 1991), 본 연구에서도 연령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변인이다. 그런데 자아존중감은 50대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시기는 지금까지의 발달과제를 잘 이루어 온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성취가 있는 안정된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Levinson, 1978). 이러한 결과는 특히 20대 연령집단(20대에서만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니었음)과 비교하여 볼 때 흥미로운 결과이다.

또한 50대에서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은 4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지금

까지 긍정적 환상과 관련된 연구(Kubler-Ross, 1969; Taylor & Brown, 1988; Weisman, 1972)에서 질병으로 인해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었고(Janoff-Bulman, 1989), 검증된 경우는 실제 모습과 일치되었을 경우였다(Janoff-Bulman, 1989; Taylor, Collins, Skokan, & Aspinwall, 1989). 즉 죽음에 임박한 자에게 긍정적 환상을 제공하는 것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의한 방법이 아니었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 중요하였다.

의의, 제한점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이 성인들의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설명변인이 되며, 이와 함께 각 연령집단에 따라 죽음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설명변인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상담현장이나 죽음교육 프로그램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이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에 주거하는 20-59세에 해당하는 882명이었는데, 연구자가 학력수준을 생각하여 대학생을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약 87%가 고졸 이상(대졸이상 44% 포함)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이 상승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구대상자들의 주거 지역이 서울·경기(부천, 성남, 안양 등 수도권)에 제한되었으므로 인해 높은 학력변인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 중에서 종교인이 68%(598/882)이고, 그 가운데 천주교·개신교가 82%(493/598)를 차지하고 있다

는 점도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죽음과 매우 밀접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성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제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부분은 본 연구의 주제 특성상 심리학적으로 접근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하였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성인들의 죽음불안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50대가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나타냈고, 2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죽음불안을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각 연령집단에 따라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20대와 50대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20대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었던 자아존중감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매우 강력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현장이나 상담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데, 성인기는 인생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기간인데, 현재 사회교육기관이나 종교교육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죽음교육 프로그램들이 연령적 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연령대 와는 무관한 일괄적인 교육내용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연령집단에 따라 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결과에서 20대 연령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불안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대들은 아직 진로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이거나 직업세계로 뛰어들었어도 아직은 성인 삶의 '푹나기' 시절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혜경 (Suh, H. 1987).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Satisfaction, Locus of Control, Death Anxiety as Perceived by Korean and American All the Adults Using Selected Personal Demographic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양혜정 (1992).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 (1973). 내외 통제 척도 작성. 연구노우트 2.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63-271.
- 하영윤 (1996). 대학생의 자아강도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미정 (1994).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미정 · 최정윤 (2000).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11(2). 167-181.
- Bradley, R. H., & Webb, R. (1976). Age Related Changes in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in Three Behavior Domains. *Human Development*, 19, 49-55.
- Cohen, S., Evans, G .W., Stokols, D., & Krantz, D. S. (1986). *Behavior, health, and environmental stress*. New York: Plenum.
- Collett, L. J.,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 72, 179-181.
- Cronkite, R. C., & Moos, R. H. (1984). The role of predisposing and moderating factors in the stress-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 372-393.
- Durlak, J. A., & Reisenberg, L. A. (1991). The impact of death education. *Death Studies, 15*, 39-58.
- Erikson, E. H. (1963). *아동기와 사회*. 윤진·김인경 역 (1988). 중앙적성출판사.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wler, J. (1981).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 Frankl, V. E. (1969).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의미에의 의지*. 이봉우역 (1980). 분도출판사.
- Gesser, G., Wong, P. T. P., & Reker, G. T. (1987). Death attitudes across the life-spa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DAP). *Omega, 18*, 109-124.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R.F. Baumeister (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189-212). New York: Springer-Verlag.
-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Rosenblatt, A., Burling, J., Lyon, D., Simon, L., & Pinel, E. (1992).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Converging evidence that self-esteem serves an anxiety-buffering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13-922.
- Hickson, J., Housley, W. F., & Boyle, C. (1988). The Relationship of Locus of Control, Age and Sex to Life Satisfaction and Death Anxiety in Older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6*, 191-199.
- Higgins, E. T. (1991). Development of self-regulatory and self-evaluative process: In M. R. Gunnar & S. A. Sroufe (Eds). *Self-Process and Development*.
- Holahan, C. K., & Moos, R. H.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46-955.
- Janoff-Bulman, R. (1989). The benefits of illusions, the threat of disillusionment, and the limitations of inaccurac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2), 158-175.
- Jung, C. G. (1969).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Vol. 8; Vol. 9*. 387-42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196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ientations toward moral order, Pt.1.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Vita Humana, 6*, 11-13.
- Kubler-Ross, E. (1969). *인간의 죽음*. 성염 역 (1979). 분도출판사.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ion. In W. D. Gentry (Eds.).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285-325. New York: Guilford.
- Lester, D. (1990).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The Original Version and a Revision. *Death Studies, 14*, 451-468.
- Lester, D. (1994).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 Scale. In ed. by Neimeyer, R. A.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45-60. Taylor & Francis.
- Levinson, J. D.,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 McKee, B. (1978).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 역 (1998).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andler, G., & Watson, D. L. (1966). *Anxiety and the interruption of behavior*. In C. Spielberger, (Ed.). anxiety and behavior, 263-283. New York: Academic Press.
- Marsh, H. W., & Shavelson, R. J. (1985). Self-concept: Its multifaceted, Hierarchical structure. *Educational Psychologist*, 20, 107-125.
- Marsh, H. W., Byrne, B. M., & Shavelson, R. J. (1988). A multifaceted academic self-concept: Its hierarchical structure and its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366-380.
- Marshall, V. (1980). *A sociology of aging and dying*. Belmont, Calif: Wadsworth.
- Marshall, V., Levy, J. (1990). Aging and dying. In R. Binstock & L.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3rd ed). New York: Academic Press.
- May, R. (1951). *The Meaning of Anxiety*. New York: Ronald Press. 129-142.
- May, R. (1961). *Existenti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 McCrae, R. R. (1982). Ag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Gerontology*, 37, 454-460.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New York: Happer & Raw Pub.
- Ray, W. J., & Kathan, M. (1968). Relation of Anxiety to Locus of Control. *Psychological Reports*, 23, 119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No. 1, 1-28.
- Seligman, D.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Freeman.
- Sheehy, G. (1976).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 E. P. Dutton & Co.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elf-esteem. In C. R., Snyder Y.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21-40). Elmsford, NY: Pergamon Press.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s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10.
- Taylor, S. E., Collins, R. L., Skokan, L. A., & Aspinwall, L. G. (1989). Maintaining positive illusions in the face of negative information: Getting the facts without letting them to get you.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114-129.
- Thorson, J. A., & Powell, F. C. (1990a). Meanings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985-986.
- Thorson, J. A., & Powell, F. C. (1994). A Revised Death Anxiety Scale. In ed. by Neimeyer R. A. (1994).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31-43. Taylor &

- Francis.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How the best and brightest came of age*. Boston: Little, Brown.
- Watson, D. (1967).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91-92.
- Weigel, C., Wertlieb, D., & Feldstein, M. (1988). Perceptual of control, competence, and contingency as influences on the stress-behavior symptom relation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56-464.
- Weisman A. D. (1972). *On dying and denying: A psychiatric study of terminality*.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Westerhoff III, J. H. (1976).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 Wong, P. T. P., Reker, G. 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ed. by Neimeyer R. A. (1994).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121-148. Taylor & Francis.
- Yalom, I. D. (1981). *Existential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K C I

Developmental study of death anxiety according to coping style, locus of control self-esteem.

Meejung Han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ajor variable factors that affect the death anxiety of adults groups. For this study, 882 persons of the aged ranging 20-59 years old were selected as random samples. The result of the analyses are: The death anxiety shows negative correlation with age. Self-esteem demonstrated no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but it showed considerably high negative correlation with death anxiety. Especially, self-esteem was important variable factor that affects death anxiety of all age group except for group of twenties. Locus of control also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death anxiety but was less responsible for death anxiety than self-esteem. In coping style, emotion-focused coping affects the death anxiety and worked as a positive factor, that is, a responsible variable factor for the rise of death anxiety. Hopeful thinking coping was a positive factor for the people in the twenties that results in the rise of death anxiety. In contrast, for the people in the forties and fifties, hopeful thinking coping worked as an negative factor that causes the decrease of death anxiety. Problem-focused coping and seeking social support coping were incoherent. The result of this provide very useful suggestion with death education or counselling field. Though adulthood is very broad time range occupying half of the life time,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selling field and programs offered by the social education institution or religion education institutions have no consideration on the variable factor according to age or personal feature. However, the degree of death anxiety of each age group and major factors that affect death anxiety proposed by this study can work as important informations for the counselling and death education program. Also, focused on the variable factors suggested by this study, the basis for the counselling, planning and performing and educational program that reflects the individual peculiarity can be provided.

Key Words : Adult, Coping Style(problem-focused coping · emotion-focused coping · hopeful thinking coping · seeking social support coping), Locus of control, Self-esteem, Death Anxiety(fear of death of the self · fear of death of the others · fear of dying of the self · fear of dying of the others)